

# 불교문화, 이젠 스마트폰으로 즐겨요

## 반야심경에서 108배까지 교계 어플 한 자리에

스마트폰 보급률이 올 연말이면 8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모바일 포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최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한 범화경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해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가 하면 조계종 포교원에서는 앱 개발 공모전을 개최해 새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3년 새 교계에서도 다양한 어플이 출시되면서 불자들의 신행문화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대중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불교계 인기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독경 반야심경

조계종 포교원과 (주)리토스가 함께 제작한 조계종 최초 어플리케이션이다. 2011년 1월 무료로 출시돼 현재 다운로드 수 13만(2012년 3월 기준) 건 이상을 기록하면서 꾸준히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한문 및 한글 독경 듣기와 전문을 볼 수 있으며 재생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유저들 대부분은 독경반야심경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얻고 있다는 반응이다. 또한 비불자들도 이 어플을 통해 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아이디 Hee\*\*\*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불자도 아닌데 진짜 좋아요"라며 반야심경을 통해 얻은 효과를 이야기 한다.

### 헬로달마스쿨

조계종 포교원에서 출간한 어린이 영어 교재 '헬로 달마 스쿨'을 기반으로 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다. 쉬운 영어 문장과 다채로운 삽화로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어린이법회용 영어교재로 불교 핵심 교리와 기본 개념을 쉽게 익힐 수 있다. 지혜, 자비, 고집멸도, 기도 수행 등 12개의 중요한 불교 기본 개념과 핵심 교리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대체적으로 유저들은 '예쁘고 깔끔하다' '예쁜 그림이 아주 좋다' 등의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야단법석

'야단법석'은 사찰정보를 제공하기 위

'독경...' 다운로드 수 3만 건 넘어  
'야단법석' 사찰 정보 제공 '인기' 신행 문화 흐름에도 변화 가져와

해 만든 어플리케이션으로 전국 사찰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된 무료 어플이다. 사찰의 기도·법회·교육·불사·행사·템플스테이 등의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사찰 주변의 맛집 및 숙박정보 서비스도 제공한다. '불자들에게 필수아이템' '다른 종교인 분들도 여행자료로 활용해서도 될듯' 등 유저들은 대부분 매우 유용한 어플이라고 칭찬한다.

### 템플스테이 '애플'

템플스테이 '애플'은 국내외인들에게 템플스테이를 알리고 한국불교문화의 전통과



다양한 불교 어플들이 대중들에게 사랑 받고 있다. 위 왼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독경반야심경, 야단법석, 헬로달마스쿨, 템플스테이 앱북.

아름다움을 전달하고자 제작됐다. 태블릿 PC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앱북에는 산사의 맛, 산사체험 1박2일, 특색 있는 템플스테이 등 한국 사찰에 대한 소개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사찰예절과 절 속에 깃든 의미 등 불교문화를 화면에 담고 있다. 더불어 외국인들이 직접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구현해 이해를 돕고, 자연풍경과 더불어 법고 범종 등 불교사물의 웅장한 소리도 들을 수 있다.

### 108배 도우미

애니메이션과 효과음에 맞춰서 절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유료 어플이다. 이미지와 함께 제공되는 설명을 통해 108배 수행을 배울 수 있으며 자신의 수준에 맞는 목표 횟수와 속도 설정은 물론, 매일 수행을 기록할 수 있다.

너무나 깊숙이 우리 생활에 들어온 스마트폰. 이제 우리 신행 문화도 불교 어플리케이션으로 좀 더 스마트해져 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불교계도 좀 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혜승 기자 bwjhs@hyunbul.com

## 전통 대표하는 佛 공예품 '풍성'

제32회 전통공예명품전...7월 10일까지 전수회관서

(사)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이사장 신응수)가 주최하는 '제32회 전통공예명품전'이 7월 10일까지 삼성동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와 지자체지정 시·도 무형문화재, 노동부선정 대한민국 명장 등의 전승자들과 각 종목별 우리나라 전통공예를 대표하는 공예 작가 116명이 참여한다.

전통공예 명품전에는 다양한 불교 관련 작품들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끈다. 주철장 원광식의 '천륜사종' 불화장 임석환의 '모란도'를 비롯 최문정의 '만다라' 김경미의 '순금니장보살본원경' 김석곤의 '독성도' 김종우의 '수월관음' 김창순의 '모란도' 송갑호의 '비천상' 조영희의 '쌍룡도' 한민정의 '아비타산존도' 등이 그것들이다.

특히 원광식의 '천륜사종'은 고려 전기종(前期鐘) 양식을 갖추고 있으며 단정하고 아름다운 문양이 돋보인다. 여의주를 문 운과, 천판(天板) 위에는 연화문 좌(蓮花紋座)와 운문좌(雲紋座)가 새겨져 있다.

작가 원광식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주철장 보유자로 2005년 신지식인 대통령표창을 수상했고 2012년 주철장 전수교육관을 개관했으며 현재 진천 종파물관 명예관장으로 있다.

최문정 작가의 '만다라' 또한 주목할 만하다. 단청 줄기 사이를 연화, 주화, 모란 등이 장식한다. 이를 바탕으로 석재 위에 수정알과 우리 가루를 덮어 화려하면서도 기품 있는 빛을 발한다.

장식성을 높이기 위해 구슬을 붙인

점도 흥미롭다. 최문정 작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전수교육조교이자 문화재 수리 기술사 417호로 인정 받았다.

송갑호 작가의 비천상은 범종에 새겨진 비천상을 밑그림으로 사용했다. 여기에 무지개 은사를 이용해 휘날리는 천의에 하늘거림을 살리고 구름에 수선은 풍실풍실한 느낌을 일깨운다. 연화대에 앉아 공양물을 든 천인의 표정은 정금수법으로 표현해 소박함을 강조했다. 송갑호 작가는 2007년 제32회 전승공예대전 장려상 수상, 2008년 한호시인 특별전(경인미술관), 2009년 제34회 전승공예대전 입선을 수상했다.

주철장 원광식의 '천륜사종' 등 공예 작가 116명 참여해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전수교육조교 김용우 작가의 '비봉동자도'는 동자승이 봉황을 타고 날아가는 장면을 표현했다. 아교점착제를 사용했으며 전통불화 기법으로 작업했다.

정전남 작가의 황옥육각사리함은 사리장엄구 일괄을 은제도금했으며 황옥 일석을 재단해 받침은 연꽃모양으로 입체조각하여 연화무늬로 조각했다.

(사)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신응수 이사장은 "이번 전시가 우리의 소중한 유산인 전통공예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이를 통해 미래문화를 이끌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02)3453-1685 정혜승 기자

## “새는 온몸으로 날아 세상을 깨운다”

### 이철수 작가 대구 기획초대전

“새는 좌우의 날개가 아니라 온 몸으로 난다. 모든 생명은 저마다 온전한 세계이기 때문이다. 새가 그러하고 사람이 그러하고 세계가 그러하다. 죽을처럼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거거서 이미 죽음에 이른 사람들까지, 온 몸으로 살고 온 몸으로 죽는다. 그러니 부디, 생명이 가혹해지지 말자” -이철수 작가의 글 중에서- 이철수 작가의 대구 기획초대전 '새는 온몸으로 난다'가 7월 18-20일까지 대구 봉산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린다. 조계종 동화사, (사)예술마당술이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30여 년 간 작업해온 작가의 작품 120여 점이 대중들을 찾아간다. 이번 전

시에서는 '꽃과 만나서' '먼 길 가는 새들' '함께 가는 새들' '백장 범문' '백장 이후' 등 최근작은 물론 초창기 작품인 '바람찬 날에 꽃이여 꽃이여' '장사의 꿈 1' '태백산맥' '밤이 하늘입니다'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예술마당술은 “2005년 전시회 이후 제작한 신작 55점은 물론 1981~2005년 사이에 제작한 작품 58점을 다시 선보인다. 구작 선정 기준은 그동안 사람들이 특히 많이 기억하는 작품들, 작가 자신이 마음에 가는 작품들을 담았다”고 전했다.

작가 이철수는 총복 제전 작업실에서의 작업을 통해 세상의 가장 깊은 속살을 건드린다. 그의 작품은 마치 즐기고 있는 우리들이 깜짝 놀라 깨어나듯이 스스로를 참회



이철수 작 '함께가는 새들'

민중 미술에서 禪의 세계까지  
30여년 작업한 120여 점 선배  
대구 봉산문화회관 제1전시실

하게 하는 힘이 있다. 미술평론가 이주현은 “그가 지금껏 그림을 그려 온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그림을 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다”라며 “그의 그림 앞에서 우리가 이것이 미술이니 문학이니, 민중미술이니 선배 미술이니 구분하고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는 장르와 범주를 초월해 그저 이야기를 한다”며 이철수의 예술세계의 존재적 근원을 설명한다.

목판화가 이철수 작가는 1981년 첫 개인전을 열었다. 민중 미술을 표방하던 그의 작품은 1988년 무렵 자기 성찰과 생명의 본질에 대한 관심으로 영역을 확대해가기 시작한다. 이후 간결하고 단아한 그림과 선가의 언어방식을 끌어온 총복살인의 화제들 혹은, 시정이 넘치는 짧은 글로 글과 어우러진 작품으로 대중들을 찾고 있다. (010)3540-5070 정혜승 기자



김종우의 '수월관음도'



원광식의 '천륜사종'

대한민국 상위 0.1% 만이 경험할 수 있는 명품을 99%의 모든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100년의 향기 SINCE 1920

## 松剛堂 송강당

송강 경옥보

○ 한의원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왜 공진보를 권하는가? (수험생의 필수품) 수험생들의 피로회복, 뇌세포활성화, 집중력과 암기력을 강화해주며 밤을 새워도 피로가 없다. 강남에서 고3 수험생이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하여 2~3시간만 수면을 취해도 공진보 복용 후 15분이 지나면 바로 생기를 찾는다.

- 공진보를 먹으면 술이 물이 된다? 간기능저하로 인한 질환(지방간, 간경변)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간의 해독 능력이 좋아진다. 간이 좋으면 치매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 성장기 청소년의 성장발육, 태어날 때부터 허약한 체질 개선 만성피로, 기력회복, 폐결핵 등 만성 호흡기질환에 효능이 매우 탁월함
- 당뇨, 갑상선, 간이 허약하신 분 복용 후 그 효능에 놀라실 것입니다.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파라다이스 면세점 입점

주문 전화 019-590-0009

송강/대명 공진보

# ‘적하수오’

##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적하수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문의: 010-8442-4444 (상담)  
묘목 재배 농장: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 바른 불자가 됩시다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요즘 불자들이 참된 발심을 하여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을 하고자 해도 바르게 이끌어주는 곳이 드뭅니다. (중략) 때문에 바른 불법의 기준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불자들의 수가 적지 않으니 이 얼마나 애달픈 일입니까. (중략) 이 책을 만나는 분들이 모두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에 들어서기를 바라며, 불보살님의 가피가 불자들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 대한민족원 선사 서문 중에서

- \*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 \* 우리가 죽으면 살아있을 때의 모든 인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 풀기 어려운 인연은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 \* 종교만 믿으면 천국에 갑니까?
- \*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겠습니까? ...

각권 10,000원  
031-534-3373